

| 2019 Eco Exchange Program |

친 종 보 고

# PriceLess

박소정 박소진 이나경

# 차례

1 환경학습\_ 아름다움을 담다, 공병공간

2 그린스쿨\_ PriceLess 팜플렛 배부, 팜플렛 내용

3 그린캠퍼스\_ 업사이클링 제품 전시 및 체험활동

4 그린월드 [1]\_ 업사이클링 인식 개선 캠페인

5 그린월드 [2]\_ 인스타그램 @team\_proceless



# 환경학습



4월 1일 | 다시 아름다움을 담다, 공병공간

**WHERE?** 이니스프리 공병공간 [서울시 종로구 소각동]

**WHAT?** 공병공간점에서 공병 업사이클링에 대해 배움. 공병으로 할 수 있는 업사이클링의 종류와, 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었음.

**[배운 점]**

단순히 이니스프리 뿐만 아니라 여타 화장품 브랜드에서도 이와 같은 공병 재사용, 업사이클 등을 진행하고 있음을 알게 됨. (Ex. Lush) 화장품을 사용한 후 공병을 반납하는 습관을 가지게 됨.

# 그린스쿨



7월 1일 | PriceLess 팜플렛 배부



**WHERE?** 신광초등학교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WHO?** 신광초등학교 재학생 50명

**WHAT?** 신광초등학교 앞에서 하교중인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업사이클에 대한 소개와, 실천방법을 담은 팜플렛을 배포함. 단순히 팜플렛 배포 뿐만 아니라 업사이클 소개 또한 함께 진행함.

**[배운 점]** 초등학생들이 쉽게 관심가지지 않을 주제라고 생각했으나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보여 놀라웠음. 환경 관련 교육의 중요성을 재고하게 됨.



**PRICELESS**  
WE MAKE GREEN

### Team PriceLess

박소진  
박소정  
이나경

Associated by: 아부다비 환경청 / 대자연 / 행정안전부

### 5. 아이스크림 봉지로 필통 만들기.



1. 아이스크림의 한쪽 끝을 끊고, 중간 선을 따라 끊어줍니다.

2. 아이스크림 내부를 물티슈로 깨끗하게 닦습니다.

3. 끝에 ~~~~~ 와 같이 끊어나온 부분을 가위로 잘끔히 잘라줍니다.

4. 아이스크림의 내부를 청테이프로 끌어줍니다. (더 편하게 해주기 위함)

5. 다시 원래 아이스크림의 형태로 접어 차운 가운데 면을 청테이프로 끌어줍니다.

6. 양쪽 끝 중 한 쪽을 글루건으로 끌어줍니다.

7. 반대 편은 크기에 맞게 잘라준 짹짹이를 글루건으로 붙여주면 완성!

### 6. Team Price Less 계정 팔로우 하기



저희는 같은 고등학교를 나와 서로 다른 대학에서 서로 다른 전공을 배우고 있지만

환경을 향한 마음만은 늘 함께인 PriceLess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Upcycling에 대해 알게 되는 그 날을 위해, Green School, Green University, Green World를 위해 초등학교, 대학교, 서울 시내를 누비며 Upcycling의 정의, 효과, 방법을 알릴 예정입니다.

### 1.

업사이클이란?



업사이클이란, 기존에 버려지는 제품을 단순히 재활용하는 차원을 넘어서 디자인을 기미하는 등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탄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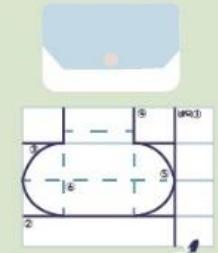
### 2.

업사이클과 리사이클. 같지만 ‘다른’



업사이클은, 생활 속에서 버려거나 놓으려고 하는 것들을 수선해 재사용하는 리사이클링(Recycling)의 상위 개념으로, 기존에 버려진 제품을 단순히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더 나아가 새로운 가치를 더해(upgrade) 전혀 다른 제품으로 “다시 생산하는 것 (recycling)”을 말한다.

### 4. 우유팩으로 지갑 만들기.



1. 우유팩의 바닥 부분과 잎이 달았던 윗부분을 잘라줍니다.

2. 우유팩을 강짜는 4 칸 중 한 칸을 모두 잘라줍니다.

3. 우유팩의 두번재, 세번재 면의 끝부분을 반원의 모양이 되도록 둥그렇게 잘라줍니다.

4. 둉그런 모양의 끝에 맞추어 나머지 면을 직선으로 잘라줍니다.

5. 둉그런 모양을 밟으로 접어 가운데로 넣어주듯이 접어줍니다.

6. 도안에서 보이는 점선을 따라 절어주면 완성!

### 3. 업사이클링 관련 제품 소개.



a. 큐클리프 cueclyp  
2016년 업사이클 브랜드로 시작한 큐클리프는 '소각 대신 소생하는 두 번째 쓸모'라는 슬로건 하에 버려진 무산을 활용해 패션 잡화를 만들고 있다. 폐우산으로 가방, 지갑, 파우치, 커버, 악세서리를 제작하며 자투리 철판으로는 명함꽂이를 제작하고 있다. 큐클리프의 브랜드 명 자체도 upcycle의 스펠링을 조합하여 만들어졌다.

### b. 하이사이클 Hicycle

2013년 소셜벤처 브랜드로 시작한 하이사이클은 환경 소재의 버려진 커피생두자루를 이용해 생분해성 화분을 만든다. 천연 황화 소재의 커피생두자루를 업사이클하여 제작한 그들의 다음이 가방은 가능성을 물론 디자인적 가치 또한 잡았다. 뿐만 아니라 통풍도 잘 되어도 식물에게 이롭고, 가볍고 튼튼하여 이동에도 용이하다.

# 그린스쿨\_팜플렛



7월 1일 | PriceLess 팜플렛 배부

## WHAT?

- 1) 업사이클이란?
- 2) 업사이클과 리사이클, 같지만 ‘다른’
- 3) 업사이클링 관련 제품 소개\_ 큐클리프, 하이사이클
- 4) 우유팩으로 지갑 만들기
- 5) 아이스크림 봉지로 필통 만들기
- 6) Team Price Less 계정 팔로우 하기

## HOW?

A4 용지를 삼등분해서 접은 후, 팜플렛의 형태로 만듬



# 그린캠퍼스



5월 22일 | 업사이클링 제품 전시 및 체험활동

**WHERE?**

이화여대 학생문화회관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WHO?**

이화여자대학교 재학생 50명

**WHAT?**

팀원들이 직접 만든 업사이클링 물품들을 가지고 전시를 진행함. 방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총 30명 이상의 학생들이 관람함. 전시를 진행하면서 우유팩 지갑만들기 체험활동을 병행하였음.

**[배운 점]**

다수의 학생들이 관심을 보였으며 업사이클링 물품의 실용성을 학생들에게 알리는 기회가 되었음. 주변 학생들이 우유팩 지갑을 만들고 실제로 사용하는 모습을 추후 발견하여 보람을 느끼.

# 그린월드[1]



6월 27일 | 업사이클링 인식 개선 캠페인

**WHERE?** 숙대입구역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WHO?** 일반시민 50명

**WHAT?** 숙명여대 일대에서 행인을 대상으로 업사이클링을 아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함. 80여명의 행인들이 설문에 동참함.

**[배운 점]** 생각보다 업사이클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 업사이클을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도 업사이클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음. 보다 많은 방법, 다양한 채널을 통해 업사이클을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됨.





## 그린월드[2]



5월~8월 | 인스타그램 @team\_proceless

**WHERE?** Instagram @team\_priceless

**WHO?** SNS 팔로워 50명

**WHAT?** 격주로 업사이클에 대해 알리는 카드뉴스를 팀 인스타그램 계정에 업로드함. 해시태그를 통해 다양한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진행함.

### [배운 점]

여러 사람들의 다양한 댓글 및 좋아요를 통해 다수의 사람들이 환경에 대해 고려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SNS의 파급효과를 실감하게 됨. 다수의 사람들이 카드뉴스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깨닫게 되었다는 반응을 보여 보람을 느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박소정 박소진 이나경